

고린도교회와 그리스문화를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신앙 찾기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안의 쪽수는 교재 <고린도교회와 그리스문화>의 것임.

제1장 고린도 사회가 교회에 미친 악영향과 고린도서신이 기록된 배경

1. 고린도(그림 15, 197쪽)

고린도는 그리스의 소도시였고, 고린도교회는 흠당물 속에 핀 수련과 같아서 흠당물에 얼룩이 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였다.



바울의 제2-3차 선교활동무대

2. 고린도의 사회적인 특징

고린도는 상업도시이자, 다인종사회였다. 수리아인, 이집트인, 동방인,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이 살았고, 군인, 평민, 빈민, 매춘부, 해방노예, 노예 등이 살았다. 인구 10여만 명 가운데 노예가 3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근성, 도덕성, 윤리성이 낮은 도시였다(18, 123-124쪽).



아폴론의 뱀 화살 등과 아스클레피오스의 뱀 지팡이

3. 고린도의 종교문화적인 특징

옛 고린도에 아폴론, 옥타비아(초대 로마황제의 누이), 제우스, 헤라, 튀케(운명의 여신), 포세이돈, 헤르메스의 신전들이 있었고, 심지어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있었다. 또 아고라(광장)에는 아르테미스(아데미), 디오니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아프로디테, 아테나 등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밖에도 아크로고린도 기슭에 이시스와 세라피스(혼합신), 파테스(Fates), 데메테르 등의 사당들이 있었고, 정상에는 6주식 아프로디테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였다(92-93, 115-116쪽).



삼각다리 의사에서 제비가 신약을 전하는 장면

● 예언과 동성애-아폴론(16-17쪽)

아폴론(Apollon)은 그리스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이었다. 그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아

들로서 태양의 신, 예언의 신, 궁술의 신, 의술의 신, 음악과 시의 신으로 추앙받았다. 여기서 고린도서와 관련을 지어볼 수 있는 것이 예언과 의술이다. 그러나 아폴론의 이 예언과 의술에 앞서 아프로디테의 여성애(매춘)와 관련지어 생각해 봐야할 것이 남성애 즉 동성애이다.

● 매춘과 음행-아프로디테(66-69쪽)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바닷물 거품에서 태어나 조가비에 몸을 싣고 키프로스(구브로) 섬의 물으로 나왔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수도 바보가 아프로디테의 본산지였지만, 그리스 본토에서는 유일하게 주신으로 모셨던 고린도가 더 유명세를 탔다.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리스 반도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한 덩어리 바위산 아크로고린도에 세워졌었고, 1천여 명의 여사제들 곧 신전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매우 부유하였다. 이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세계에서 고린도는 성을 사고파는 도시로써 주전 수백 년 전부터 그 악명을 떨쳤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의 변질에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룻의 영향이 컸다.



시돈의 에스문 신전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룻의 스페르스 팔걸이의자와 그녀에게 신전을 봉헌했노라고 기록을 남긴 시돈(레바논)의 왕 에슈무나자르의 석관(루브르 박물관 소장)



델포이 신전에서 발굴된 총독 갈리오 비문
주후 51-52년 아가야 총독의 임기를 마친 갈리오에게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보낸 축하문이 음각되어 있다.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룻과 시돈(레바논)의 주화에 실린 마차를 탄 아스다룻(이스라엘 박물관)



고린도 주화
전면: 황제 클라우디우스(주후 41-54년)
후면: 아크로고린도 바위에 세워진 욱주식의 아프로디테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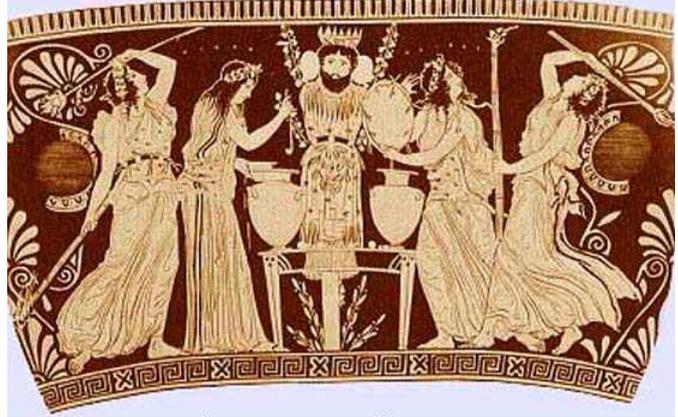
● 예배의 광기-디오니소스(124, 130, 157쪽)

디오니소스 예배의 큰 특징은 여성들이 주관한다는 점, 숭배자들이 광란상태에서 무아지경

에 빠진다는 점, 술 취함과 집단혼음과 광기로 인해서 무질서하다는 점, 날고기를 먹는다는 점이였다. 그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지팡이를 흔들며 무리지어 행진하였고, 피리소리에 맞춰 소고 치고 고함치며 춤(헤드뱅잉)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숲속이나 들판으로 나갔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동물을 산 채로 찢었으며 그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셨다.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디오니소스 지팡이(thyrsos)를 손에 쥐어 여사제가 술에 취해 광란(헤드뱅잉)하는 모습 (주후 120-140년, 로마시대의 복조: 스페인 마드리드 박물관).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주의 만찬을 질서를 갖추어 시행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대조를 이룬다



바쿠스(디오니소스)축제 때 여성사제들이 광란(헤드뱅잉)하는 모습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주의 만찬을 질서를 갖추어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대조를 이룬다.



피리소리에 맞춰 소고치며 춤추는 디오니소스 여사제들 (주전 450년경, 파리 루브르). 이 광란의 축제 때 억눌려 살던 여성들이 마음의 치유와 해방을 맛보았다.

● 예언의 광기-델포이 신탁소(136, 149-150쪽)

고린도에서 가까운 북쪽 인근 델포이에 신탁을 알아보는 유명한 아폴론신전이 있었다. 이곳이 유명했던 이유는 예언의 신인 아폴론이 뤼톤(왕뱀)을 죽이고, 그의 아내인 뤼티아를 사람으로 만들어 신탁소의 제니(여사제)로 삼아 자신이 맡겨놓은 예언(신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또 델포이(Delphi)에서는 여사제 뤼티아가 손에 성수가 담긴 접시와 올리브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세 다리 의자(Tripous)에 앉아 아디톤(adyton) 성소 바닥의 갈라진 틈에서 올라오는 에틸렌 가스에 취해(뤼톤 영에 접신하여) 신탁을 전하였다. 신화에 따르면, 뤼티아는 왕뱀 뤼톤의 부인이었으나 아폴론이 뤼톤을 활을 쏘아 죽이고 뤼티아를 제니로 만들어 자신이 맡겨놓은 뜻(신탁, Oracle) 곧 인간들의 운명을 방언을 통해서 예언토

록 하였다. 집신한 퀴티아가 무아지경에서 지껄이는 방언을 옆에 선 시인이나 제사장이 통역하여 신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하였다.

플라톤은 저서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신들림을 '신성한 광기'라고 부르면서 예언적 광기가 아폴론에게서 온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비의(秘儀)적 광기는 디오니소스, 시적 광기는 뮤즈, 사랑의 광기는 에로스에게서 온다고 하였다. 여기서 광기는 신의 영감 혹은 신의 선물 곧 은사를 뜻한다. 델포이는 이 예언적 광기가 충만한 대표적 신탁소여서 퀴티아의 예언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곤 하였다.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던 델포이 신전의 여사제 퀴티아 좌우측 그림은 퀴티아가 손에 성수접시와 올리브 가지를 들고 세 다리 의자에 앉아 아디톤(adyton) 성소 바닥의 갈라진 틈에서 올라오는 에테랄린 가스에 취해(뒤통수에 집신하여) 신탁을 전하는 장면이다. 중앙의 그림은 왕범 뒤통의 복인이었던 퀴티아가 뒤통수에 집신한 모습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공적 예배에서 하는 모든 순서의 목적을 세움(살림)에 두라고 권하였다. 또 바울은 31절에서 예언과 방언은 그 목적을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는 데"에 두되, 40절에서 순차에 따라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하였다. 고린도교회에는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37절) 자들이 남녀무문하고 많았고, 성도들 앞에 나서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바울은 34절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였다.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9명의 뮤즈들(2세기 로마석판, 루브르) 왼쪽부터 칼리오페(서사시), 탈리아(희극), 테르프시코레(춤), 에우테르페(악기), 멜포메네(비극), 클리오(역사), 에라토(서정시), 우라니아(천문), 폴리힘니아(찬가).

평소 남녀평등주의를 표방했던 바울로 볼 때, 이곳에서의 충고는 다소 충격적이다. 반면에 이 무렵 이교문화에 폭 젖어있던 헬라 여성들의 관행으로 볼 때, 바울의 충고는 시의적절한 면이 충분하였다. 디오니소스 예배의 큰 특징은 여성들이 주관한다는 점, 승배자들이 광란상태에서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점, 술 취함과 집단혼음과 광기로 인해서 무질서하다는 점, 날고기를 먹는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지팡이를 흔들며 무리지어 행진하였고, 피리소리에 맞춰 소고 치고 고함치며 춤(헤드뱅잉)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숲속이나 들판으로 나갔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동물을 산 채로 찢었으며 그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셨다. 플라톤은 <향연>(Symposion)에서 이런 육체적 광기가 이데아세계로까지 승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울이 이를 기독교에서 성취시켰던 것이다. 디오니소스 제전이 제공한 마음의 치유와 해방은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의 발산과 쾌락에서 온 것으로써 오늘날의 클럽문화에 비교 될 수 있다. 바울은 기독교를 이런 이교문화와는 확실하게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델포이와 도도나의 신탁소무당들이 무아지경에서 내뱉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보다는 방언을 더 신령한 것으로 여겼고, 공적 예배 때 자신의 신령함을 앞 다투어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성도들이 서로 먼저 설교하겠다고 다툰 것과 같다. 이 무렵 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설교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신령한 것이 사랑이고, 세움(살림)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예언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성서시대의 예언자들은 방언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

● **치유와 뱀-에피다우로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휴양소(17, 33쪽)**

고린도에서 가까운 남동쪽 에피다우로스에는 아폴론이 인간 코로니스에게서 낳은 아들이자, 아버지 아폴론으로부터 의술을 물려받은 아스클레피오스와 그의 딸 히기에이아(Hygieia, 위생)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다. 이 신전에 하루만 머물러도 온갖 병이 다 낫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곳이었다. 몰려든 환자와 가족들이 휴식, 명상, 운동, 목욕, 독서, 산책, 연극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들, 즉 신전들, 사당들, 여관들, 운동경기장, 대중탕, 극장 등이 있었던 곳이었다. 극장은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대 중심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1만 6천여 전 좌석에까지 들릴 정도로 음향이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터. 이곳에 현존하는 스타디움과 극장은 물론, 목욕탕, 음악당, 체육관, 아카데미와 아프로디테 신전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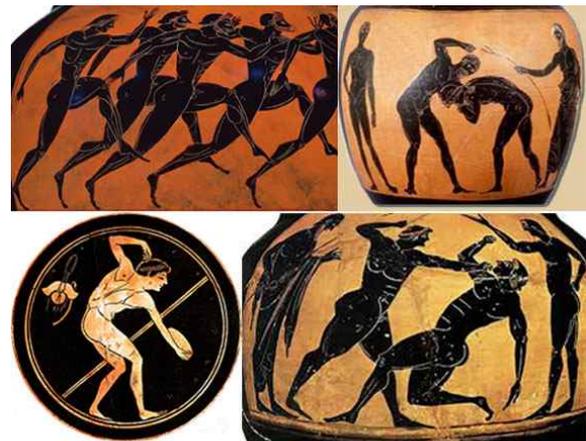


연극이 시작되기 직전의 에피다우로스의 고대극장

● **스포츠 제전들(16-18쪽, 그림 105-106쪽)**



여신 나이키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승려자



항아리와 접시에 그려진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 경기

아폴론의 동성애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것이 운동경기였다. 4대 범 그리스 경기대회가 모두 고린도 인근에서 열렸다. 가까운 동쪽 이스트미아의 포세이돈 신전에서 2년마다, 가까운 남서쪽 네메아에서 2년마다, 북쪽 델포이에서 4년마다, 남서쪽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열렸다. 가장 큰 대회인 올림피아드를 기준으로 2년째와 4년째 해에 네메아대회와 이스트미아대회가

열리고, 3년째 해에 델포이 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남성들은 모두 벌거벗은 몸으로 경기에 임했다. 몸에 올리브기름을 바른 채 두 남성이 씨름하는 레슬링은 신체의 접촉이 많아 남성애 구애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스포츠 제전이 고린도 인근에서 매년 열렸던 만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천막제조 비즈니스는 제법 번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고린도서신이 기록된 배경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은 '글로벌의 집 편'(고전 1:11)으로부터 고린도교회에 파당과 분열(1장), 음행(5장)과 소송(6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고린도교회의 대표들이 보내온 편지(고전 7:1)에 결혼과 이혼, 독신과 재혼의 문제(7장),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의 자유(8-9장), 이교축제에 물든 자들의 공적예배에서의 무질서 즉 주의 만찬(10장), 기도나 예언할 때의 옷때무세, 특히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11장), 은사(12-14장) 및 부활(15장) 등에 대해서 물어왔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들 문제들의 해결책을 상세히 적어 디모데 편에 보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에 디모데가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바울의 적대자가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잠시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때 바울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고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냈다. 바울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조급중에 빌립보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 적대자들의 반란이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해의 뜻이 담긴 글을 써서 디도의 편에 다시 보냈는데, 그 글이 고린도후서이다(97, 105, 190-191쪽).

제2장 고린도교회와 바울과의 충돌의 원인

1. 원인: 서로 다른 세계관들의 충돌(4, 102-103, 120-121쪽)

- 율법주의에 편향된 유대인들의 세계관



돼지를 부정한(treyf) 동물로 여겨 카샤루트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다.



카샤루트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방 고기제품과 우유제품, 또 그것들을 조리하거나 덮는 용기들이 섞이지 않도록 싱크, 스토브, 전자레인지, 찬장 등을 두 개씩 설치하였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보기에 좋았다.

둘째, 그러나 만물의 절반은 부정을 타고 난다. 그래서 만물은 정한(kosher) 것과 부정한(treyf) 것으로 나뉜다(그림: 98-100쪽).

셋째, 율법과 규례에 따라 부정한 것을 엄금(嚴禁)하고, 정한 것만 먹고 사용한다.

넷째,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특히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들과 교제하면 부정하게 된다.

다섯째, 그들이 부정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다.

여섯째, 카샤룻(Kashrut)에 따라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섞거나 함께 씻거나 함께 조리하거나 함께 보관하거나 함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일곱째, 부정을 타면 규례에 따라 정결례를 행한다. 그러면 다시 정하게 된다.



카샤룻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식당 정한(kosher) 음식재료들만을 사용하되,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이 어떤 경우에도 섞이지 않도록 조리하는 식당

● 영지주의에 편향된 헬라인들의 세계관

첫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저급하고 악하다. 따라서 그것을 지은 창조자는 저급한 신(神)이다.

둘째,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육체는 감옥이며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남용해도 된다.

셋째, 하물며 어떻게 신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넷째,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자유지상주의)(그림: 77-80, 118-1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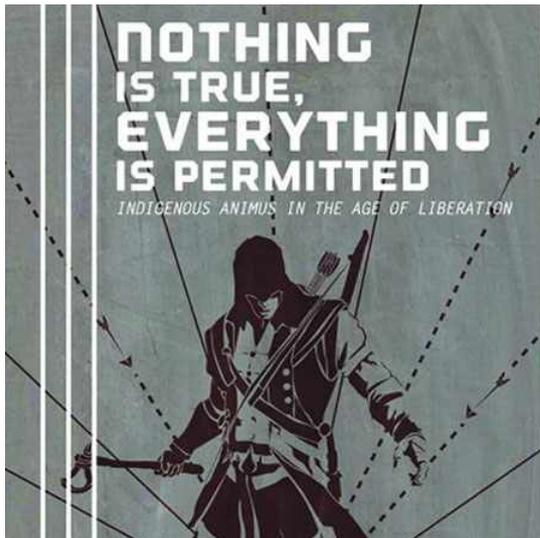
다섯째, 불행은 숙명이며(스토아 철학), 쾌락은 최고의 선이다(에피쿠로스 철학)(그림: 77-78쪽).

여섯째, 불행한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고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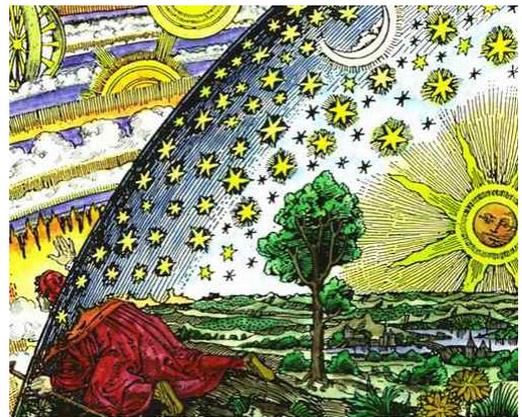
일곱째, 육체와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들어갈 지혜(열쇠, 암호)를 명상과 비전(秘典)을 통해서 찾는다(그림: 46-47쪽).



신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라는 무신론자들의 구호와 성적 추방의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성적 소수자들(LGBT)



"진실은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선전하는 암살단 포스터 작은 글씨로 "해방의 시대에서의 자생적 증오"라는 말도 썼다.



영지주의의 세계관(복각)

우측은 어둠의 세계이고 좌측은 빛의 세계이다. 해, 달, 별은 빛의 세계로부터 참빛이 지상으로 방출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단에는 빛의 사자들을 통해 영지를 깨달은 한 사환이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다. 이를 신적 불꽃이 본향을 찾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첫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보기에 좋았고 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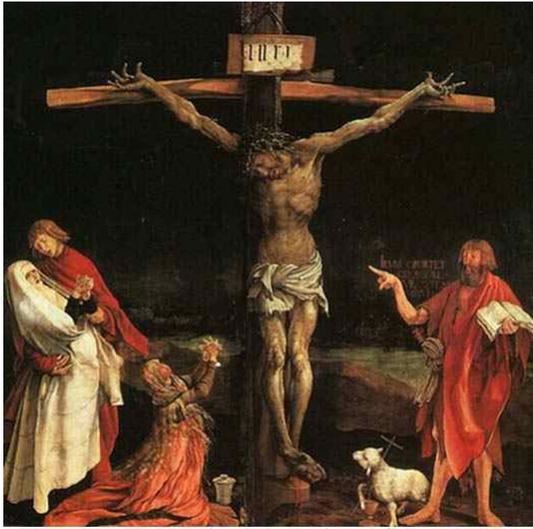
둘째, 세계는 거룩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중립적이다.

셋째,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사용하는 동기, 목적, 방법에 따라 그것들은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용자인 인간에게 있다.

넷째, 인간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 테두리에서 자유를 쓰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사랑은 권리를 제한한다.

다섯째,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창조의 일에, 예수님은 도움의 손을 내밀어 빛과 생명의 일에 자유를 제한하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그림: 28, 30, 39쪽).



이진하임 제단화: 십자가 처형복음(1515년)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프랑스 클마르 운티렌덴 미술관



별단 모세(미켈란젤로)와 가시관 씌 예수(패션오브크라이스트)



제우스-아몬의
두 뿔 머리



하나님의 어린양의
일곱 눈, 일곱 뿔

2. 결과: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충돌(206-211쪽)

● 나사렛파(노쯔림, 193-195쪽)

나사렛파는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로 나뉜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외국출신) 유대인 나사렛파는 주로 복음주의에 속했고,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히브리파(본토출신) 유대인 나사렛파는 주로 율법주의(Messianic Jews)에 속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무렵까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주후 30년 오순절 성령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예슈아)운동을 유대교의 한 분파나 메시아운동 정도로 여겼다. 그들은 예수운동에 속한 자들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인들' 즉 '나사렛파'(노쯔림, Notzrim)로 일컬어지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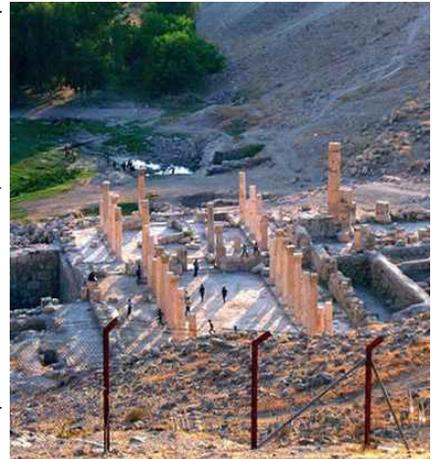
(1) 율법주의 나사렛파

예수운동이 확대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전파되자, 유대인공동체가 술렁였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랜 희망(Ha-Tikvah)인 민족해방과 고토회복이 오실 자 메시아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믿어왔고 토라(모세율법 혹은 계명)의 엄격한 준수가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의 열쇠라고 믿어왔다. 이 믿음에 편향된 민족주의 배타주의 율법주의 히브리파 유대인 나사렛파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안디옥교회에까지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1절)고 가르쳤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엠블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은
극우 유대인들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하다.

교회에 쟁론이 벌어졌다. 이에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교회에 보내 사도들의 판결문을 받아오게 하였고, 그 일로 주후 51년경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행 15:5)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이 더 먼 갈라디아와 고린도에서도 발견되었다.



주후 66년경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피신했던 펠라(요르단). 성도들은 유대-로마전쟁 당시 계시에 의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곳으로 피신하였다.

이들 율법주의 나사렛파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리더십아래 있던 예루살렘교회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지역에 퍼져있었으나 제1차 유대-로마전쟁(주후 66-70년)의 패배와 바울의 영향아래 있었던 이방인 교회들의 강세로 인해서 대부분 바울의 복음주의 기독교에 흡수되었다. 가이사라의 주교 유세비우스가 남긴 <교회사> 3권 5장에 따르면, 이들 율법주의 나사렛파는 주후 66년경 유대-로마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주님의 계시를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펠라(Pella)로 피난하였다. 펠라(208쪽)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사마리아 땅과 마주한 베레아 땅으로써 현재의 요르단 북부 요단강 주변에 있었던 도시였다. 베레아는 이방지역이어서 유대-로마전쟁 때 피해를 면한 곳이다. 펠라는 주후 635년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기독교가 성행했던 곳이다.

(2)복음주의 나사렛파

나사렛파 운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그 운동이 민족주의 배타주의 율법주의 유대교의 틀과 한계를 벗고 세계종교인 오늘의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외국(디아스포라)출신의 세계주의 포용주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이들은 민족성별 빈부귀천과 율법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자가 된다고 확신하였다.

● 에비온파(193-195쪽)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문자적으로 지상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떠돌이였고 노예였다. 땅은 그들이 수천 년간 꿈꿔왔던 희망(Ha-Tikvah)이었고, 다가올 세상(Olam Ha-Ba)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까닭도 그가 가나안땅의 희망을 품었던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후로 그들이 가나안땅을 차지하고 주권을 행사한 기간은 1천년이 넘지 않지만, 주권을 빼앗겼거나 속주민으로 살았던 기간은 3천년이 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절박함은 율법준수의 엄격함으로 나타났다. 유대교는 민족해방과 가나안땅회복이 ‘토라’(모세율법)와 토라보호를 위해서 만든 율타리법인 규례를 철저히 지킬 때 이뤄진다고 믿고 가르치는 민족종교이다(207쪽). 그러므로 대다수 유대인들은 고토회복도 민족해방도 이뤄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메시아로 믿는 행위(30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함)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배신행위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소수의 무리였지만, 예수님을 율법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우쳐준 위대한 랍비로 인정하여 그의 가르침과 사상을 따랐는데, 그들이 바로 에비온파였다.

그러나 이들 에비온파는 바울의 적대자들이었다. 그들은 “히브리인”(고후 11:22)들로서 “지극히 큰 사도들”(고후 11:5, 12:11)을 빙자한 “거짓 사도”(고후 11:13)들로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고후 11:4)을 전한 자들이었다(참고: 갈 1:6,7,9).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갈 1:8,9)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고후 11:13)고 하였다. 에비온주의자가 고린도교회에 침투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현혹됨으로써 바울과 크게 충돌하였으나 결국 바울과 복음주의가 승리로 끝났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에비온파(Ebionites)는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대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율법의 근본정신을 일깨워준 참교사로 떠받든다. 또 그들은 이 그룹의 지도자로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를 꼽는다. 에비온파는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대로와 노아홍수이전처럼 채식을 고집한다. 에비온파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유대교의 배신자와 이단자로 보기 때문에 바울서신들을 성서로 받아드리지 않는다. 그들이 신약성서에서 받아드린 책은 히브리어 마태복음뿐이다. 반면에 나사렛파는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등을 믿는다. 따라서 나사렛파는 큰 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범주에 속하지만, 에비온파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을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지만,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에비온파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문화와 이방문화들을 정치적으로 혼합한 이방종교에 불과하다고 본다. 에비온파들은 역설적으로 신약성서교회는 구약성서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예수님의 율법해석과 마태복음만을 인정해온 에비온파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며, 유대교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차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독교 복음에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서에 편향된 기독교 종파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로 인해서 순수하고 복음적인 신약성서교회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 극우 유대인들(그림 215, 227-230쪽)



방화로 소실된 갈릴리 호숫가의 외병이여기념 교회당
2015년 6월 17일 발생된 이 화재는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며, 그들은 출입문 쪽에 "가짜 신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낙서를 남겼다.



“기독교에 죽음을, 예수는 창녀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
극우 유대인집단인 프라이스 태그(Price Tag)가 2012년 2월 20일 예루살렘의 침례교회당 외벽에 남긴 스토크레이 낙서이다.

극우 유대인들은 고린도전후서가 쓰인 57년경까지 바울에게 5차례 이상 39대의 곤장을 치고 수차례 감옥에 가뒀을 뿐 아니라, 잔인한 투석형을 한 차례 시행하였다. 유대인들은 사형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 폭동이나 난동을 일으켜 바울을 찢어 죽이거나 투석하여 죽이려 하였다. 이스라엘의 극우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한 테러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인들 원숭이”라고 쓴 스토크레이 낙서
극우 유대인집단인 프라이스 태그(Price Tag)가 2013년 5월 31일 예루살렘의 성모승천성당의 외벽에 남긴 것이다.



“프라이스 태그, 예수 쓰레기. 유대인에게 다윗 왕을”
극우 유대인집단인 프라이스 태그(Price Tag)가 2014년 5월 8일 예루살렘의 루마니아 교회당 외벽에 남긴 스토크레이 낙서이다.

제3강 바울의 복음주의 신앙의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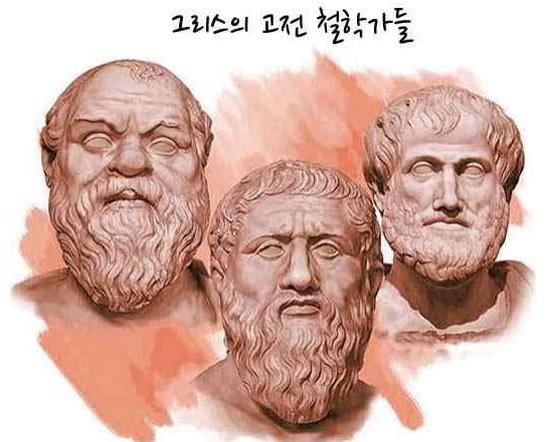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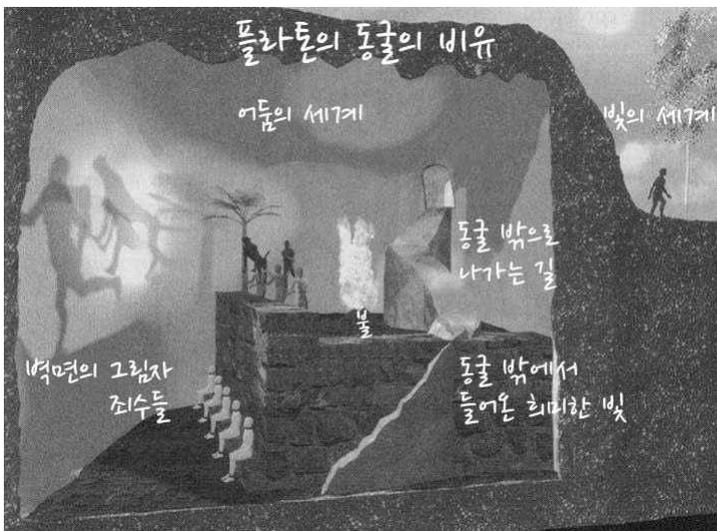
1.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40-42쪽, 그림 47쪽)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매우 역설적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미련한 것이 똑똑한 것을 이기며,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는 것을 역설한 후 6절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 설명하였다.

바울이 말한 세상의 지혜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비유는 주전 400여 년 전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에게 들려준 우화로써 플라톤이 쓴 <공화국> 또는 <국가론> 7권에 나온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굴 속의 죄수들은 의식이 있기 전부터 손발이 족쇄에 묶인 채 뒤쪽이 막힌 공간에서 앞쪽 벽만 보고 살아갔다. 반면에 뒷벽 플랫폼에는 동굴거주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했고, 모닥불도 피웠다. 이 모닥불 빛에 의해서 죄수들이 볼 수 있는 벽면에 온갖 형상의 그림자들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온갖 소리가 죄수들의 귀청을 울리기 때문에, 또 실상을 본 적이 없고, 불을 본 적이 없고, 동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태양빛이 만드는 파노라마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족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무덤 같은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들과 소리들을 실상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이 동굴 속의 죄수들의 무지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는 흑암에 갇힌 것이고, 족쇄에 묶인 것이고, 동굴에 갇힌 것이고, 무덤에 갇힌 것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실상은 무지하다.



소크라테스(약 469-399BC), 플라톤(약 424-348BC), 아리스토텔레스(약 384-322BC)

2.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127, 154쪽)

● 신령함의 척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함의 척도는 세움(살림)이다. 생명과 질서가 신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신령한 은사는 아가페 사랑이다. 바울이, 만일 사랑이 없다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최고조에 이른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구제와 봉사도, 요란한 타악기소리에 불과한, 아무 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는 육신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포한 것은, 세움(살림)이 없는 것의 무익함을 지적한 것이다. 예언이 방언보다 신령한 이유는 예언이 앞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세움과 권면과 위로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계시)과 말씀을 쉽고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여기서 유익이란 성도들의 신앙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진실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미더운 것, 가장 사랑스런 것들이다. 그러므로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진실한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미더운 것, 가장 사랑스런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미덥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3. 바울이 참으로 바란 것

바울이 진실로 바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다(빌 3:10).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것,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 더 좋은 영원한 것,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하였다. 고린도후서 4장 10-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바로 그의 이런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 질그릇 속의 보화와 심히 큰 능력(고후 4장)(그림 218-220쪽)



질그릇 속의 보화(주후 253-305, 영국 시머셋 박물관)
 영국과 프랑스 북부를 통치한 로마황제 카라우시우스(carausius, 주후 286-293년)
 시대의 머장물. 질그릇 속에 60억 원어치나 되는 주화 52,503개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주화는 카라우시우스 어드벤처스(c. Adventus) 은화 데나리온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엄청난 보화(속사람)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겉사람)에 담게 되었다고 하였다. 바울이 언급한 질그릇(겉사람) 속의 보화(속사람)는 없어질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영적인 보화, 하늘의 보화, 영원한 보화, 더 영원한 영광의 보화를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말한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을 지닌 새 언약(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8-9절에서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10-11절에서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몸에” 또는 “예수의 생

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피력하였다. 또 12-13절에서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죽음에 가까운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기꺼이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말하였다.



질그릇 속의 보화(주후 13세기, 이스라엘 아스루프)

십자군의 호스티들 기사단이 아스루프(Arsuf) 요새에 숨긴 108개의 디나르 금화. 파티마(Fatimid) 왕조가 주도한 것으로서 5억 건만 원어치에 해당된다.

비록 바울이 지상에 속한 것과 육적인 것을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그렇다고 악하게 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는 중립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질그릇)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보화)은 날로 새로워진다”(16절)는 말씀에서 겉사람이 낡아지고 굴욕스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 악해서가 아니다. 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더욱 젊어진다는 뜻이기보다는 세상을 하직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천상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 무한한 것과 영원한 것, 더 큰 영원한 영광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슬프고 애통한 일이겠지만, 14절에서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 이유를 17-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고난이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가볍다는 것은 수고와 고난이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기보다는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질그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화)이어야 한다. 지상에서의 삶(질그릇)은 잠깐이지만, 천상에서의 삶(보화)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 죽음을 삼킬 생명(고후 5장)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6절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 겉사람에 담긴 속사람이란 표현을 썼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을 삼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표현을 썼다. 여기서 질그릇, 겉사람, 장막 집은 땅에 속한 것들로써 깨지거나 낡아지거나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다. 땅의 것들이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을 자연법칙, 엔트로피법칙, 제2열역학법칙이라고 부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이 자연적인 것에 깨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담는 것이다.

바울은 깨지는 질그릇 같고, 낡아지는 겉사람 같으며, 무너지는 장막 집과 같은 땅의 것들을, 영지주의자들처럼, 벗기를 사모하지 않고 덧입기를 사모하였다(2절). ‘덧입기’란 입고 있는 옷 위에 걸쳐 입는다는 뜻이다. 땅에 있는 장막 집을 벗지 않고 그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껴입는다는 뜻이다. 깨어질 질그릇 속에 영원한 보화를 담고,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담는 것은 영적부활과 현재구원을 말한 반면, 무너질 장막

집 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은 주님 재림의 때에 있을 육체부활과 미래구원을 말한다.

(1) 율법주의 유대인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질 땅의 것들에 집착하여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들이 희망(Ha-Tikvah)한 땅과 해방과 같은 세상 것들에는 영적인 보화가 없고, 영원히 살 속사람이 없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없는 겉껍데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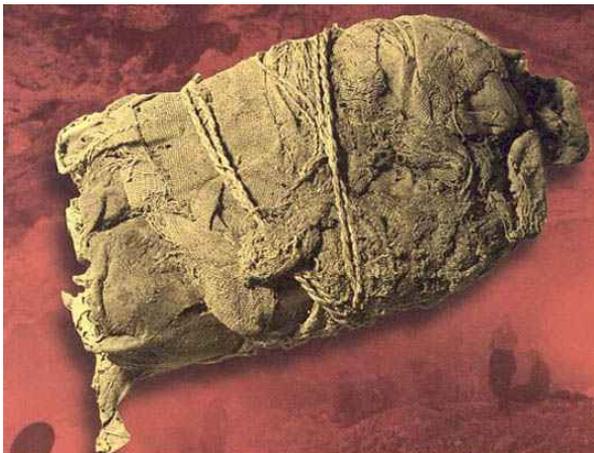
(2) 영지주의 헬라인들

영지주의 헬라인들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질그릇, 겉사람, 장막 집으로 표현된 세상의 것, 유한한 것, 물질적인 것을 죄악시하여 벗고자하였다.

(3)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하늘의 것을 담고, 유한 것에 영원한 것을 담고,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담고자하였고, 깨지고 낡아지고 무너지고 말 육체에 영원하고 영화로운 육체를 덧입고자하였다. 이것이 복음주의자가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자와 다른 점이다. 그리고 2-4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상반된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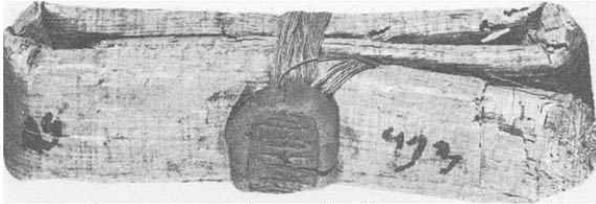
4. 그리스도인들의 희망(Ha-Tikvah)에 보증금과 인감이 되신 성령님(고후 5장)(그림 222-224쪽)



유대인 여성 바바사(Babatha)의 문서 파우치(주후 96-134년) 1960년 사해인근 엔게디의 '포진 동굴'로 알려진 곳에서 혁명가 바르 코크바의 서신들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혼인, 소유물 이전, 후견인에 관한 법적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확고한 것임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금과 인감으로 주셨다고 하였다(5절). 바울은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였고(엡 1:2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고도 하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인봉된 주전 5세기 파피루스 문서
알렉산드리아는 바빌론에 유다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곳이다. 이 문서꾸러미는 1907-08년에 발견되었다.

바울은 5절에서 상속(기업 혹은 유업)이란 말 대신에 '장차 올 것'이란 표현을 썼다. 우리말 성경은 5절을 "이것을(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로 번역하였는데, 영어성경은 "장차 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로 번역하였다. '장차 올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화로운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엡 2:8) 이 약정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1장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였다. 여기서 성령님이 보증금과 인감으로 표현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시게 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상속(기업 혹은 유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금과 인감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엡 1:13-14)고 하였다.

바울은 5절에서 상속(기업 혹은 유업)이란 말 대신에 '장차 올 것'이란 표현을 썼다.



바스쿨의 아들 그달라의 인장(상)과
셀레키아의 아들 유갈의 인장(하)이
석조건물에서 발견되었다(렘 38:1).

● 모형으로써의 개선행진(Pax Romana)(그림 201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신다"(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는 뜻이다. 헬라어 '드리암뷰오'(thriambeuo)는 "개선행진으로 인도하다"는 뜻으로 로마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 이긴 후에 돌아올 때 전과(戰果)를 적은 현판들을 들고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행진을 말한다.



티투스(디도의) 개선문 복조(Relief of the Triumph of Titus)
오른쪽에 토가를 걸친 티투스가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타 있고, 날개를 펼친 여신 니케(승리)가 티투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고 있다. 전차 옆에 상체가 드러난 사람은 평민을 우측 토가를 걸친 사람은 원로원의 의원을 대표한다.
말 왼쪽에서 고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여신 로마 또는 여신 통맹을 상징한다.

바울시대 이후 황제들은 신성시되었고, 그들의 승리는 여신 니케와 관련지어졌다. 로마군 총사령관이 되어 유대-로마전쟁(주후 66-70)을 지휘했던 티투스는 주후 81년경에 로마에 개선문을 세웠는데, 비문에 "로마의 원로원(senate)과 시민들이 신성(Divine) 티투스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헌정함"이라고 새기게 하였다. 그리고 개선문의 안쪽에 개선식 장면들을 부조케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토가를 걸친 티투스가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타 있고, 날개를 펼친 여신 니케(승리)가 티투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는 장면이다. 티투스의 전차 옆에 상체를 드러난 평민과 토가를 걸친 원로원의 의원을 상징적으로 배치하였고, 여신 로마 또는 여신 통맹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붙잡게 하였다. 로마제국에 승리와 평화(Pax Romana)를 가

저다주는 이가 황제라는 메시지를 담았던 것이다(그림 201쪽).

그러나 바울은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고, 매일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믿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선행진의 모형을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펼쳤던 가나안땅을 향한 행진에서 찾았다. 늘 배고픔과 목마름과 곤고함과 피곤함과 핍박과 싸움이 있었지만, 구름기둥이 히브리인들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였듯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처지가 종종 개선행진에 강제로 참여한 노예들 처럼 처참하였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바울은 14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승리자로 개선행진에 참여시켜주신다고 확신하였다.

● 실체로써의 개선행진(Pax Christi)(그림 203쪽)

바울이 확신했고 내다보았던 것처럼,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고, 제국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넘쳐나게 되었다. 이 일의 시작은 주후 313년 2월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1세(주후 272-337)와 리키니우스(Licinius)가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6월에 발표한 칙령으로 이뤄졌다.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었고, 몰수당한 교회의 재산들이 반환되었으며, 기독교 탄압을 위한 법안들도 모두 폐지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특별주화(주후 315년)
투구벼슬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새겼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8개월 전인 주후 312년 10월 28일에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로마 근교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치른 일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거둠으로써 사두정치체제를 끝내고 단독 황제가 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밀비우스 다리 전투 직전에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보았고, 즉각 군기(labarum)와 군인들의 방패에 그리스도

(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새기게 하였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동시대의 인물로서 가이사라의 주교이자 최초로 교회사를 저술한 유세비우스(Eusebius)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환상을 본 직후부터 '키-로'가 새겨진 투구를 즐겨 썼다고 기술하였다.

유세비우스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은화가 주후 315년에 이태리 북부 티키눔(Ticinum)에서 발행된바 있다. 이 은화는 증정용으로 만들어져 널리 통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은화의 가치가 큰 이유는 주후 312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키-로'를 군기와 방패에 새기게 한지 불과 3년 이내에 주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은화에 새겨진 황제의 투구벼슬에서 '키-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그림 203쪽).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주화(주후 337년경)

그리고 환상을 본지 25년 후인 주후 337년에 발행된 동전 앞면에 월계관을 쓴 두상 주위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CONSTANTINVS MAX(imus) AVG(vstvs)>라고 썼고, 뒷면에

앞면: 월계관을 쓴 두상 주위로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VS MAX AVG)라 썼다. 뒷면: 뱀을 찍어 누른 군기 사이에 “대제의 희망 콘스탄티누스”(SPES PUBLICA CONS)라 썼다. 군기(labarum) 상단에는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겹쳐서 썼다.

뱀을 찍어 누른 군기사이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누스" <SPES PUBLICA CONS(tantinvs)> 라고 쓴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군기 상단에는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에서 본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를 겹쳐서 썼다. 이후 '키-로'는 교회와 비잔틴제국의 황제들이 즐겨 사용한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다(그림 203쪽).

● 그리스도의 향기로써의 개선행진(그림 204-5쪽)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지 8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4세기말 밀라노에는 주 지방장관이었던 암브로시우스(아우구스티누스의 멘토)가 극적으로 주교로 임명받고 삼위일체론을 지지하고 있었고, 밀라노에 머물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도 380년에 칙령을 받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선으로 325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신앙고백서이자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한 니케아신조를 신봉하게 되었다. 삼위일체론자들과 단일신론자들 사이의 대립이 극심하던 때였지만, 테오도시우스는 380년 2월 28일에 모든 시민이 니케아신조를 고백하라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그때부터 삼위일체설을 믿는 사람들만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었고, '보편적'(catholic)이라는 호칭이 최초로 문서에 등장하였다.



테오도시우스 대제의 금화(주후 393-395년경)

앞면: "우리의 주 테오도시우스, 경건하고 유복한 황제" <DN THEODOSIVS PF AVG>라고 썼다. 뒷면: 테오도시우스가 오른손에 군기, 왼손에 지구위에 선 여신 승리를 올려놓고 포로를 밟고 선 모습. "세 명의 황제들의 승리, 신성한 돈, 금관청에 의한 순금" <VICTORIA AVGGG SM COMOB>이라고 썼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주후 385년부터 희생 제사를 금지시켰고, 391년에 로마와 이집트에서 이교숭배를 금지시켰으며, 392년에는 전 제국에서 금지시킴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가 믿었던 것처럼 기독교 천년왕국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3-5년 사이에 주조된 금화 앞면에는 "우리의 주 테오도시

우스 경건하고 유복한 황제" <D(ominus)N(oster) THEODOSIVS P(ius)F(elix) AVG(vstvs)>라고 쓰게 하였고, 뒷면에 테오도시우스가 오른손에 군기, 왼손에 지구위에 선 여신 니케(승리)를 올려놓고 포로를 밟고 선 모습과 "세 명의 황제들의 승리, 신성한 돈, 금관청(金官廳)에 의한 순금" <VICTORIA AVGGG(=Augustorum) S(acra)M(oneta) COM(es Auri)OB(ryza)>이라고 쓰게 하였다(그림 204쪽).

바울은 에베소에 체류하는 동안 돌에 새긴 승리의 여신 니케를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그림 205쪽).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개선행진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승리는 생명을 살림으로써 얻는 승리요, 이 행진은 생명의 향기를 뿌리는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황제들이나 장군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얻는 승리와 노예로 사로잡고 재물을 탈취하며 사망의 냄새를 풍긴 행진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다. 또 이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풍기는 생명의 향기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적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리의 여신 니케 복조

결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고후 5장)(그림 225쪽)



IHSU XRISTU BASILEU BASILE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S XS BASILEU BASILE(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C XC NIKA(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비잔틴시대의 주화(주후 969-1081년)
황제 대신에 복음서를 안고 계신 예수님을 새겼다.

면에는 주로 십자가를 새기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IHSU XRISTU BASILEU BASILE 또는 줄여서 IS XS BASILEU BASILE) 혹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를 새겨 넣었다(그림 225쪽).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승리자로 인정하는 자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처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세상의 것, 유한한 것,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지주의 헬라인들처럼 세상의 것, 유한한 것, 물질적인 것은 무시하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것에 하늘의 것을 담고, 유한 것에 영원한 것을 담고,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담는 일에 헌신한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여 정죄하기보다는 상반된 그것들을 통합하여 복음주의를 만들어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시켜 영과 육이 하나가 되게 하였다. 육이 영을 담는 통전적인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육은 깨지면서, 낱아지면서, 무너지면서, 영은 더욱 빛나고 새로워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이 깨지고 낱아지고 무너지고 사망하게 될 것을 삼켜버리게 될 것을 믿었다.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을 힘입어 율법주의(正)를 영지주의(反)와 통합하여 복음주의(合)를 변증법적으로 도출해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기독교를 유대교와 이교들과 차별화하고 성별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이단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구약성서에 편향된 유대교적 율법주의 혹은 영적 세계에 편향된 영지주의에서 비롯된다.

●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바울이 인식한 역사는 이렇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유대인들이 희망해온, 결국은 또 다시 깨지고 낱아지고 무너지고 말,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깨지지 않고 낱아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과 인류구원을 위해서



프란체스코 사르비아티(1510-63)의 카이로스
 벌거숭이 몸에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는
 없으며, 등과 발뒤꿈치에 신속하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손에는 천칭과 칼이 들려
 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신속히
 판단 결정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시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란 것이다(6:2, 사 49:8). 이 ‘때’에 대한 인식이 바로 바울의 역사인식이었다.

바울 당대의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하였다. 우주역사 또는 인류역사처럼 객관적 보편적 양적 시간을 ‘크로노스’(chronos)로 이해하였고, 정해진 시간 또는 특별한 시간처럼 개인과 관련된 주관적 구체적 질적 시간을 ‘카이로스’(kairos)로 이해하였다. 프란체스코 사르비아티(Francesco Salviati, 1510-63)가 그린 ‘카이로스’를 보면,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가 없고, 등과 발뒤꿈치에 순간속도를 높이기 위한 날개가 달려 있고, 손에는 천칭과 칼이 들려 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신속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한 시간’ 또는 ‘기회’로도 번역될 수 있는 카이로스(kairos)는 앞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트린 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천칭을 들이대며 값을 치른 후에 가져가라고 말한다. 값을 따지며 망설이는 순간 시간은 순식간에 돌아서 날아가 버린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손을 뻗어봤자 뒷머리가 민머리인데다가 벌거숭이 몸이어서 붙잡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기회, 남녀노소 빈 부귀천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자가 되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있다. 크로노스를 묘사한 작품들을 보면, 그에게는 긴 수염과 날개가 있고, 손에는 모래시계와 낫이 있으며, 양발사이에 아이가 있다. 여기서 수염은 시간의 태고성, 날개는 시간의 덧없음, 모래시계는 역사의 끝, 낫은 추수심판, 어린 아이는 시간이 삼키고 말 죽음을 상징한다. 모래시계가 멈추듯이 역사는 멈춰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교훈이다. 따라서 종말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바울은 “나타날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또는 ‘장차 올 세상’(Olam Ha-Ba)에 대해서 후천년설의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바울의 대적자였던 예비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문자적 회복을 희망하였으므로 시대구분론(세대주의)적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부정하였으므로 전천년설적이었다. 바울은 깨어질 질그릇 속에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담고자 하였다. 또 무너질 장막 집이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희망하였다. 질그릇 같고, 겉사람 같고, 장막 집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21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Chronos)
 수염은 태고, 날개는 시간의 덧없음,
 모래시계는 종말, 낫은 심판, 아이는
 시간이 삼키고 말 죽음을 상징한다.



고 한 것과 같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눅 5:38)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으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것이다(사 11:9)고 한 이사야의 예언과도 같다. 그러므로 지금은 장막 집이 하늘의 처소로 덧입히울 때까지 질그릇에 하늘의 보화를, 겉사람에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담아야 할 때인 것이다.